

News

은행채 발행 제한으로 예금금리 더 오른다

아시아경제

채권시장 불안으로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면서 예금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
지난주 은행채 발행액은 3조4300억원으로 전주(6조75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

케이뱅크 전세대출 1조 돌파

파이낸셜

전세대출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취급액 1조원을 돌파
전세대출 고객층을 분석한 결과 MZ세대가 주로 이용

금융소비자, 어떤 앱 가장 많이 이용하나

파이낸셜

소비자가 꼽은 '필수 금융 앱' 1위 토스, 2위 KB국민은행 스타뱅킹, 3위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와 신한 솔(SOL)은 지난달에 이어 3위와 4위 자리를 지킴

"조달금리 부담에..."카드사, 대출 우대금리부터 줄였다

이데일리

여전채 AA+, AA0 연초대비 4%p 상승
우리 · 하나 · 현대카드, 제로 우대금리

車부상치료 특약, 손보사만 판매?… 삼성·교보생명서도 가입한다

머니S

자동차부상치료 특약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공통상품으로 바뀜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을 판매하면서 매출 증대와 고객 정보 수집 등 두 마리 토끼를 확보할 수 있음

'흥국생명 후폭풍' 생보사 유동성 비상…당국 "규제 한시적 완화"

매일경제

보험해지 늘고 자금조달 비상, 채권 팔며 겨우 버티는 상황..지난달에만 2조원 순매도
긴급 진화 나선 금융당국, 유동성 평가기준 풀어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왕좌 경쟁 본격화...내달 일제히 상품 출시

머니투데이

증권 · 금융업계가 내달 초 일제히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출시
디폴트옵션 본격 시행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최근 증시가 부진한 것이 증권업계에는 부담

흔한 두자릿수 금리...PF ABCP는 여전히 살얼음판

이데일리

PF 가까스로 차환해도 금리 꺾춤, 둔촌주공 PF는 12%에 차환
지방 도시개발 · 주상복합 · 물류센터 PF 9% 이상, 11월 차환발행 집중...만기 짧아지면서 위험 가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